



# 포장인 선서

The Oath of Packer

지금껏 인류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남의 누이나 딸을 내가 취해오고, 또 나의 딸과 누이를 이웃에게 주는 이른바 교환을 통한 혼인의 법칙과 상품의 교환을 통해 이룬 시장경제의 질서는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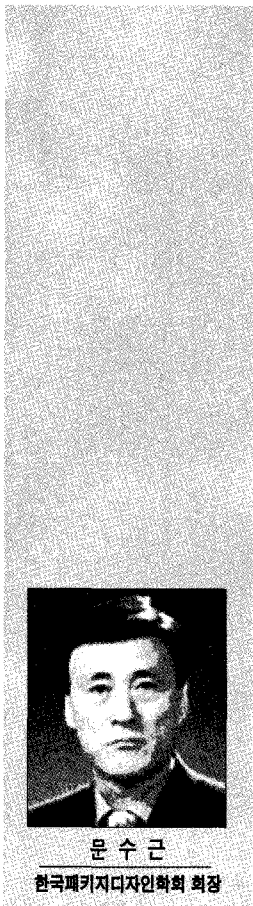
인류는 이들 법칙을 통해 세상을 오늘과 같은 문명개화의 사회로 건인할 수 있었고 이 중 상품의 교환은 경제발전의 매개로서 향후에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문명개화를 선도하는 변화의 추진 엔진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포장인은 상품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기습 벽찬 책임감으로 긴장해야 한다.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정보를 수용하도록 제안하는 정보 제안자로서의 포장인의 역할은 곧 영향력(Leadership)이기 때문이다.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오늘과 같은 경쟁과 변화의 세기를 가리켜 '거대한 전환기'라는 용어를 채용하면서 이러한 격동기에 인구의 증가를 비롯해서 핵전쟁의 공포 등은 피할 수 없는 엔트로피(무질서도)의 함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앨빈 토플러도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을 통해 정보화 사회의 지나친 발달은 오히려 대중을 구동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보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창조력과 상상력을 감퇴시켜서 사회의 일부분으로 기꺼이 흡수되는 경향을 나타



문수근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회장

## “ 모든 포장 단체와 포장인이 하나되어 자정의 전환점 되길 ... ”

낼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

석학들의 지적처럼 인간을 수단화하여 유발된 기계화 현상들이 도처에서 무질서와 혼돈 등 소외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룩된 균형발전이 아닌 역기능 시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불요 불급한 사치성 조장 상품과 허위와 과대, 부실포장 상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타의 브랜드를 무단 복제하여 해당사의 브랜드자산을 훼손, 망실시키거나 디자인을 도용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재활용과 재사용 등을 고려하지 못한 환경배치 상품의 가장 근본적인 개선책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간성 개조에 의한 양심 회복에 있다.

포장인이 견지할 또 하나의 개념이 줄(J. Joule)이 체계화한 에너지보존의 법칙으로 고립된 계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될 때 없어진 양과 생성된 양은 동일하다는 학설이다. 바꾸어 말하면 에너지는 그 형태가 바뀔 수는 있으나 창조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열역학 제1의 법칙이다.

무책임하게 생산되어진 상품일지라도 한번 만들어진 상품은 형의 변형(Transform)은 있을지언정 지구상 어디엔가 떠돌아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열역학 제1의 법칙에 견주어 만들 때 한번 더 숙고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시대를 관영하는 안목으로, 반듯한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이 있었으면 한다. 지켜 마땅히 행할 덕목을 편의상 선서라고 하자.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향하는 다짐의 소리이고 권리선언일 수도 있다.

미래와 후세에 대한 약속이 되기도 한다. 정부나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모든 포장단체와 포장인의 자발적 추구가 곧 안심, 안정, 안전의 3안 사회를 앞당기는 동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포장인선서가 제정되어 자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포장협회와 학회, 패키지디자인협회와 학회 등 포장관련의 유관 단체 모두가 하나되는 포장단체연합회의의 결집도 제안한다. [ko]